

근대시기 한국 ‘영웅전’과 양계초의 관련 양상

문대일*

目 录

1. 들어가는 말
2. 사회진화론 사상의 수용과 양계초
3. 한국근대 ‘영웅전’ 흥기와 양계초의 관계
4. 양계초 ‘영웅전’의 번역과 목적
5. 한국근대 창작 ‘영웅전’의 성행
6.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근대 한국¹⁾의 문단²⁾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많은 문인들이 ‘영웅전’의 번역과 창작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학 현상은 내적으로 민족의 전통문학을 이어받아 발전시킴³⁾과 동시에 외적으로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

- 1) 1897년 고종은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었다. 공식적으로는 이 국호를 1910년 8월 29일 한일 간 강제 합병 때까지 사용하였으나, 이 시기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사실상 조선, 대한제국, 한국 등의 국호가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때문에 본고는 통일성과 편리성을 위해서 근대 초기를 한국이라고 쓰기로 한다.
- 2) 당시 문학계는 현재의 문단과 같이 정식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였으며, 글쓰기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문학가들은 언론매체, 즉 신문, 잡지 등을 통해서 작품을 발표하였다.
- 3) 외적의 침략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는 내용의 고전소설인 「壬辰錄」 및 당시 부패한 정치를 개혁하고 탐관오리를 척결하는 내용의 ‘영웅’적 색채가 농후한 소설인 「임격정」, 「洪吉童傳」 등은 근대 초기 영웅전 창작에 자양분이 되었을 것으로 판

외국문학의 영향과 ‘충격’을 흡수하고 소화함으로써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근대시기 국호가 개방되면서 수많은 외국 문학 작품과 외국 사상들이 한국에 번역 및 소개 되어졌으며, 이 시기 양계초의 글 역시 상당수가 한국으로 소개되어졌다. 특히 애국계몽사상을 중심사상으로 하는 사설 및 논설문과 ‘영웅’을 제재로 한 문학작품들이 널리 읽혔다는 점과 양계초의 글들이 당시 한국 문인들이 주편을 맡고 있던 『황성일보』, 『대한매일신보』, 『서우』 등의 주요 기관지에 수차례에 걸쳐 게재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양계초의 글은 실제로 그 당시 지식인층 및 일반 대중에게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시간적인 순서로 근대시기 한국의 ‘영웅전’ 창작 발전과정을 보면 먼저 ‘외국 영웅전’들이 한국으로 번역되어져 들어와 성행하였고, 그 영향으로 ‘본토 영웅전’의 창작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근대시기 한국에 번역 소개 되어진 외국 문학 작품들 중 상당수가 영웅전기 소설이며, 외국의 영웅전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작가들 스스로 영웅전을 창작하여 근대 한국 문단은 공전⁴⁾의 창작번영을 이루게 된다. 사실 이러한 영웅전의 번영은 양계초의 문학과 그가 창작한 영웅전의 영향아래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양계초의 문학과 그의 일련의 작품들이 한국 근대문학에 미친 영향은 다른 어떠한 외국의 문학의 영향보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897년 양계초의 글이 처음 소개된 이후에, 특히 1904년부터 1910년까지 한국에서는 양계초 ‘붐’이 일어났다. 그 구체적인 통계⁵⁾는 다음과 같다.

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지속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4) 근대 초기에 접어든 후, 우리나라의 순수 창작 영웅전 작품 숫자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외국 ‘영웅전’ 작품의 번역과도 관련이 있다. 참조: 김병철, 『한국 근대 번역문학사 연구』, 서울: 을류문화사, 1988년.

5) 필자는 국문학자 전동현 교수가 조사한 양계초의 ‘정치관’ 관련 글이 한국에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근대시기 신문과 잡지에 실린 양계초의 문학과 관련된 글 및 한국 학자들이 양계초의 글에 대한 독후감, 평론문, 사설 등의 글을 수량을 재정리하고 종합하여 통계를 낸 것이다. 참조: 錢東炫, 「大韓帝國時期 中國 梁啓超를 통한 近代的 民

근대시기 한국에 소개된 양계초 관련 문장 통계표(1899-1912)⁶⁾

年度	原文	翻譯文	譯述文	單行本	合計	
1899년	·	2편	·	·	2편	
1900년	·	·	·	1권	·	1권
1906년	1편	5편		1권	6편	1권
1907년	3편	11편	6편	1권	20편	1권
1908년	2편	21편	3편	4권	26편	4권
1909년	·	5편	1편	·	6편	·
1910년	·	·	1편	·	1편	·
1911년	·	·	·	1권	·	1권
1912년	·	·	·	·	·	·
合計	6편	44편	11편	8권	61편	8권

초창기 양계초의 글들은 대부분 『時務報』를 비롯한 『清議報』, 『新民叢報』, 『新小説』 등의 잡지에 실려 한국에 전해 졌으며, 이후 양계초의 문집이라 할 수 있는 『飲冰室自由書』, 『飲冰室文集』 등이 연이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그의 문학관은 당시 한국 문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다. 특히 당시 한국문인들이 대부분 한문해독 능력이 뛰어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양계초 글의 파급효과와 그 영향력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1905년부터 1909년까지 양계초의 글이 한국의 근대 신문과 잡지에 많이 소개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짧은 3년이란 시간 동안 신문과 잡지를 통해 번역되어지고 소개되어진 글과 저서는 각각 58편과 6권이 된다. 그 중 대다수는 애국과 계몽을 주제로 다룬 글들과 영웅전에 관한 작품이 많이 소개되었다.

근대 한국 잡지에 양계초의 글이 이처럼 많이 실렸다는 것은 당시 근대 한

權概念의 수용 : 韓國言論의 “新民”과 “愛國” 理解, 중국근현대사연구 제21집, 2004.
 6) 양계초의 글을 소개한 근대시기 한국의 주된 신문, 잡지는 다음과 같다. 『皇城新聞』, 『獨立新聞』, 『大韓自強會報』, 『太極學報』, 『帝國新聞』, 『西友』, 『共立新報』, 『幼年必讀』, 『大同日報』, 『大韓協會會報』, 『西北會月報』, 『大韓每日申報』, 『畿湖興學會月報』, 『新韓民報』, 『嶠南教育會雜誌』 등이 있다.

국 문인들이 양계초의 글을 매우 중시하였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러한 ‘현상’은 그 당시 특수한 한국의 사회적 역사상황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1909년 한국은 일본과 불평등 조약인 을사조약을 맺어 일본에게 외교권을 박탈당했고, 1910년에는 또 ‘한일합방’으로 국권을 박탈당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근대 한국문인들은 독립운동의 한 일환으로써 양계초의 글과 저서를 한국에 대량으로 소개한 것이다. 이 시기 많은 한국문인들은 언론매체에 투신하여 자주독립과 국권회복을 비롯한 애국사상들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당시 양계초의 글은 대부분 이러한 애국계몽사상을 주제로 한 영웅전이었으므로 한국 문인들은 적극적으로 양계초 글들을 원문, 역술문, 평론 등의 형식으로 소개하기 시작했다.

이 외에도 양계초의 자강사상은 사회진화론 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근대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근대 문학의 ‘영웅전’ 창작과 유행은 사실 양계초에 의한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그에 따른 영웅전의 번역이 선행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 이었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양계초를 매개체로 하는 사회진화론 사상의 수용에서부터 영웅적 번역 그리고 영웅전의 창작으로 이어지는 주된 흐름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사회진화론 사상의 수용과 양계초

2.1 양계초의 사회진화론 사상과 영웅전

근대초기 한중 양국은 ‘사회진화론’ 사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주지하다시피, 당시 한중 애국계몽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사회진화론 사상은 민족독립의 사상적 근거가 되기 충분하였다. 특히 ‘弱肉强食, 適者生存’이라는 사상적 기치아래 애국계몽 사상가들은 민족의 ‘우민성’과 ‘노예성’을 벗어나기 위

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개혁운동을 진행했다. 이로서 문학은 그 자체로서 개혁의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후반 다윈의 『종의 기원』(1859)을 발표된 후, '사회진화론'에 대한 인식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다윈의 진화론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이론에 그치지 않고 철학, 사회학, 정치학, 역사학 등의 기타 주변의 인문사회학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직간접적으로 당시의 사회정책, 국가의식 및 국권사상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사회학자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는 다윈의 진화론을 인문사회분야에 응용하여 '경쟁은 사회의 동력이다'라는 주장을 펼쳤으며, '진화의 과정은 인류가 부단히 가장 좋은 방법을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고, '최대의 선행은 즉 생명연장에 유리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러한 스펜서의 '경쟁 진화론' 이론은 인류학 영역에서 발전되어 '사회진화론'이론으로 구체화되었다.

1895년 중국은 청일전쟁에 실패하면서 불평등 조약인 『馬關條約』을 맺게 되었다. 중국 내부의 봉건적이고 폐쇄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淸정부의 무능과 부패로 인해 결국 중국은 반식민지로 전락되었으며, 이러한 민족적 위기를 타파하고자 강유위, 양계초등을 중심으로 한 維新派가 났다. 이들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의 전방위적으로 '變法運動'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으며, 그 중에서도 양계초는 반복적으로 '變法'사상을 강조하였고, 중국의 '自強'의식 가져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양계초는 '세상의 만사만물은 모두 변화하기 마련이며, 만약 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 인류가 생존할 기회를 얻게 되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모든 것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양계초의 '變法自強'사상은 그의 「變法通議」에서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화하려는 자신이 그 변화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나라를 보존할 수 있고, 종족을 보존할 수 있으며, 종교도 보존할 수 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고 그 변화의 권리를 남에게 양보하게 되면, 곧 그 변화에 구속받게 되고, 그 변화를 따르기 급급하게 된다. 7)

양계초는 국가 생존의 방편으로서 ‘변법’을 강조하였으며, ‘자강변법’을 실천하는 것과 ‘保國’, ‘保種’, ‘保教’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사회진화론의 ‘생존경쟁’, ‘적자생존’ 등과 같은 핵심개념과 연관성이 깊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嚴復의 『천연론』(1898)이 번역되면서 부터 사회진화론 사상의 영향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8) 그 중에서 양계초는 사회진화론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은 애국지사 중 하나이다. 『양계초 문집』의 기록에 의하면 일찍이 양계초는 그의 스승인 南海 강유위 선생에게서 사회진화론에 대한 이론을 배웠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엄복이 『천연론』을 출간하기 일 년 전에 미리 원고를 받아 보고 배웠다고 한다. 9) 양계초는 엄복의 『천연론』을 충분히 소화한 후에 「國家思想變遷異同論」, 「維新圖說」, 「進化論革命者頡德之說」 등 사회진화론과 관련된 일련의 글들을 발표하여 사회진화론 사상의 내포된 의미를 치밀하고 훌륭하게 요약해 냈다.

小部落이 서로 경쟁하면 진일보하여 大部落이 되고, 大部落이 서로 경쟁하면 진일보하여 種族이 된다. 種族이 서로 경쟁하면 진일보하여 大種族이 되고, 여러 大種族이 경쟁하면 진일보하여 國家가 되고 또 大國家가 된다. 여러 大國家가 경쟁하면 帝國이 되고, 또 大帝國이 된다. 미래는 大帝國과 大帝國이 서로 경쟁하는 시대이다. 10)

- 7) 變而變者, 變之權操諸己, 可以保國, 可以保種, 可以保教. 不變而變者, 變之權讓諸人, 束縛之, 馳驟之. 참조: 梁啓超, 『梁啓超全集』, 北京: 北京出版社, 1999, P10.
- 8) 그 당시 많은 저명한 문인들도 『천연론』의 사회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문인들이 천연론에서 소개된 사회진화론 사상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저명한 문학혁명가 胡適도 그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으며, 심지어 호적의 이름 중에서 ‘適’자도 사회진화론에서 논하는 ‘적자생존’ 사상의 영향을 받아 지은 것이라고 한다.
- 9) “書中之言, 啓超昔嘗有所聞于南海, 而未能盡. 南海曰: ‘若等無詫爲新理, 西人治此學者, 不知幾何家幾何年矣’. 及得尊者, 喜幸無量.” 참조: 梁啓超, 『飲冰室文集』(文集之一), 北京: 中華書局, 1989년 10월.
- 10) 참조: 魏朝勇, 「新中國未來記」의 歷史觀念及其政治倫理, 浙江學刊, 2006(4). “人類別爲無量之小部落, 小部落相競, 進爲大部落, 大部落相競, 進而爲種族, 種族相競爭, 進而爲大

상술한 내용을 근거로 보면, 양계초는 인류의 발전과정을 小部落→大部落→種族→大種族→國家→大國家→帝國→大帝國라 요약하면서 경쟁의 과정을 통해 국가가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즉, 인류는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계속 발전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양계초는 만약 국가 간의 경쟁 속에서 승리하려면 국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혼란한 시기일 때일수록 국가적인 영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영웅의 역할을 강조하는 「英雄與時勢」, 「無名之英雄」, 「文明與英雄之比例」 등의 일련의 글들을 집필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민중들에게 민족영웅의 모범을 보여 줄 수 있는 「中國偉人傳五種」, 「匈牙利愛國家葛蘇士傳」, 「羅蘭夫人傳」, 「意大利建國三傑傳」 등의 구국 영웅전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양계초의 대부분 영웅사상에 관한 글들과 영웅전 작품들은 『飲水室文集』에 수록되어 근대 한국으로 전해서 광범위하게 보급되었다.

2.2 양계초를 통한 사회진화론 사상과 영웅사상 수용

사회진화론 사상은 19세기말에 개화사상가 유길준에 의해 최초로 한국으로 전해졌다. 유길준은 일본유학시절 도쿄제국대학교에 교환교수로 와있던 미국의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모스(Edward s. Morse)와 '문명개화론'자인 후쿠자와 유키치가 주장한 '사회진화론' 사상의 영향을 깊게 받았으며, 한국으로 돌아온 후 「경쟁론」이란 글을 발표하여 사회진화론 사상을 최초로 한국에 소개하였다. 또한 그는 『서유견문』을 집필하여 스펜서, 헉슬리(Thomas Henry Huxley)등 여러 사회 진화론 학자들을 소개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서유견문』도 역시 사회진화론 사상의 색채가 짙은 저서라고 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유길준을 필두로¹¹⁾ 하여 당시 언론매체, 학교, 서적 등을 통

種族，復相競爭，進而爲國，進而爲大國家，復相競爭，進而爲帝國，進而大帝國。自今以往，則大帝國與大帝國競爭之時代之。”

11) 유길준 이외에도, 서재필, 박은식, 최석하, 나홍석, 윤치호, 신채호, 김영기, 장응진 등

해 사회진화론 사상이 전파되어졌으며, 이를 시발점으로 하여 계몽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언론매체, 학교, 서적 등을 통해서 계몽의 열기가 불려 일으켰다.

이 외에도, 사회진화론 사상은 중국 서적을 통해서 한국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특히 양계초의 『飲氷室文集』이 널리 보급되면서 사회진화론 사상과 영웅사상은 한국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으며, 부분적으로 ‘경쟁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양계초의 단행본 『中國魂』 역시 사회진화론 사상을 한국에 소개시키는데 일조를 하였다. 『中國魂』을 살펴보면 ‘過渡시대론’, ‘근대 국민경쟁의 大事 및 중국의 장래를 논함’, ‘국가사상 변천의 異同론’ 등¹²⁾을 서술하고 있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1907년부터 1908년까지 14편의 『中國魂』과 관련된 번역문, 역술문, 평론문이 신문 및 잡지에 등재되었다. 즉, 일 년이라는 시간 사이에 『中國魂』의 거의 모든 내용이 한국에 소개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아 당시 대다수의 한국문인들이 양계초의 애국사상, 사회진화론 사상, 영웅사상 등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우리는 1906년 12월 24일 『태극일보』 제5호에 발표된 최석하의 「조선혼」이란 글을 주목해야만 한다. 이 글은 그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최석하는 양계초의 『中國魂』을 읽고 영감을 받아, 당시 한국의 역사 상황과 문화배경에 맞게 ‘재창작’ 한 것이다. 최석하는 글 중에서 ‘淸國의 양계초가 자국민의 魂을 강조’하면서 쓴 『中國魂』을 칭송하였고, ‘대한민국의 상황은 淸國보다 自國魂이 수백 배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조선혼」을 창작하고 청년들이 널리 읽을 것을 주장하였다. 그가 「조선혼」을 집필한 궁극적 목적은 自國魂을 강조하여 조선이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자주독립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라 할 수 있다. 환언하자면, 최석하는 양계초의 ‘中國魂’ 개념에서 ‘조선혼’ 개념을 빌려 자국민의 정신을

이 직간접적으로 사회진화론 사상에 관한 글을 발표하였다.

12) 『중국혼』 상하권의 목차를 보면 ‘中國積弱溯源論’, ‘過渡時代論’, ‘論近世國民競爭之大事及中國之前途’, ‘國家思想變遷異同論’, ‘歐洲有分國民階級之風而中國無之’ 등 사회진화론의 경쟁사상과 관련된 제목이 많다.

강조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조선이 '保鍾', '保國'할 수 있기를 바란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사회진화론 사상은 점차 한국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이는 영웅사상과 결부되어 한국 문인을 비롯한 한국 국민들은 구국영웅의 출현을 갈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신채호가 양계초의 「意大利建國三傑傳」을 번역하여 한국에 소개하면서 민족영웅에 대한 관심은 매우 커지게 되었다. 상술한 내용을 통해, 한국문인들은 양계초의 글과 문집을 통해서 사회진화론 사상을 수용하였고, 자국의 혼을 불러 일으켜 국난을 회복하고자 하였으며, 영웅전기의 번역과 창작을 통해서 민족영웅의 출현을 고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한국근대 '영웅전'의 흥기와 양계초의 관계

근대시기 한국 영웅전 발전과정을 시간 순으로 보자면, 먼저 외국의 영웅전들이 번역되어 한국에 소개된 후, 그 영향을 받아 한국 작가들의 영웅전 창작이 이루어 졌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많은 한국문인들은 양계초의 사회진화론 사상과 영웅전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때문에 본장에서는 근대시기 한국 영웅전의 興起와 양계초의 영향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양계초는 국가를 강하게 만드는 일환으로서 '번역사업'을 강조하였다. 그는 사회 진화론적 관점에서 서양의 선진사상을 담고 있는 글과 문학작품들을 번역하여 소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민중들의 의식을 개혁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외적과의 경쟁에서 승리 할 수 있다고 믿었다. 때문에 그는 책을 번역할 때는 세 가지 뜻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는 좋은 책을 선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번역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며, 셋째는 우수한 번역가를 배양하는 것이다.' 라는 매우 구체적인 번역의 '조건'을 제시하며 1897년 10월 상해에 대동역서국을 설립하여 전문적인 번역가를 배양하고 번역서를 출판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양계초는 「論譯書」, 「大同譯書局敘例」, 「譯印政治小說序」 등

의 글을 통해 소설이 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 등 여러 방면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외국소설 번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양계초는 「論譯書」이라는 글을 통해 ‘서양에서 중시되고 있는 서적 중 일본에서 번역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는 일본이 강국이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라 칭송하며, 번역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大同譯書局敍例」를 통해 ‘좋은 책을 번역하는 것은 지금 가장 급선무이다.’¹³⁾라고 했으며, 심지어 ‘지금 급히 책을 번역하지 않으면, 소위 變法者가 말하는 말이 모두的空言이 된다’라고 지적하였다.¹⁴⁾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양계초가 양서의 번역이 직접적으로 국가의 ‘흥망성쇠’와 연관 있다고 여겼고, 더 나아가서 그가 서양 국가들의 발전과 문학작품의 번역이 상관관계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양계초의 ‘번역서’가 국력을 증가시킨다는 관점은 사회진화론 사상과도 관계가 깊다. 이에 대해 양계초는 「大同譯書局敍例」를 통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라고 했으니, 그동안 중국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적의 강점을 몰라 패한 것이요, 둘째는 적이 강해진 이유를 몰라 패한 것이다’고 지적하며 적이 강해진 이유와 문학작품의 번역을 결부시켜 그 논리관계를 성립시켰다. 이러한 양계초의 관점은 중국이 반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주요한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꼬집어 말하고 있다. 양계초는 중국이 당시의 힘든 상황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선진 사상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외국서적의 번역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여겼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대부분의 한국 문인들이 양계초의 책과 글을 접하는 과정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양계초의 번역관을 받아들이게 되어, 외국의 서적들을 번역하는 것은 새로운 사상과 신지식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생각하였다는 점이다.¹⁵⁾ 때문에 당시 한국의 여러 문인들 역시 외국

13) 譯書眞今日之急圖哉!, 梁啓超, 『梁啓超全集』, 北京:北京出版社, 1999. p. 132.

14) 及今不速譯書, 則所謂變法者, 盡成空言. 梁啓超, 『梁啓超全集』, 北京:北京出版社, 1999. p. 132.

15) 한국 개화 사상가들에 의해 외국서적 번역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해외 유학파들에

서적의 번역작업을 매우 중시하게 되었고, 심지어 애국계몽 사업의 일환으로 번역작업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때문에 당시 번역 되어진 문학작품들의 주제들은 대부분 '국가사상', '애국정신', '진취적 정신'의 고취로 제한되었다는 한계를 보인다. 1907년 6월 28일자 『황성신문』의 사설란을 보면 '현재 민중들을 깨우치는 것 중 제일은 역서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번역을 주관하는 기관을 세워 번역가들을 양성하고 번역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양계초의 "현재 중국이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국의 서적을 번역하는 것을 제일로 삼는 것이니라"라고 하였던 그의 번역관과 일맥상통한다. 16) 이러한 한국 문단의 분위기로 인해 1895년부터 1910년까지 한국에서 번역되어진 문학작품은 총 95편에 이르며, 특히 1906년부터 1908년 사이 외국의 영웅 전기를 대량으로 번역하였다. 17)

의해 외국의 선진사상이 담긴 양서들이 번역되어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양계초의 번역관 또한 근대 한국지식인들에게 비교적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적지 않은 문인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양계초의 번역관을 받아들였다.

- 16) 이 밖에도 양계초와 친분이 두텁던 洪弼周 역시 『氷集節略』이라는 저서를 통해 '서양의 책을 많이 번역하는 것은 국민들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부분의 근대 한국 문인들은 양계초의 번역관을 수용하여 서양의 서적들을 번역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때문에 이 시기 외국의 정치, 역사, 법률, 교육, 문학 등의 여러 종류의 번역서적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 17) 필자는 국문학자인 김병길 교수가 집필한 『한국 근대 번역문학사 연구』에서 정리한 근대시기에 번역된 외국소설의 목록을 토대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근대 한국 문인들이 번역한 외국의 '영웅전'을 정리하였다.

時 間	作 品	譯 者
1895년11월 7일 ~ 1896년 1월 26일 『漢城新聞』	『拿破侖傳』	未詳
1906년12월 24일 ~ 1907년 5월 24일 『太極學報』	『俾斯麥傳』	樸容善
1906년11월 10일 ~ 不詳 『朝陽報』, 1908년 4월(中央書館)	『匈牙利愛國者噶蘇士傳』	未詳, 李鋪相
1907년 4월 30 『共修學報』	『彼得大帝傳』	趙鐘觀
1907년 5월 23일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博文書館)	『羅蘭夫人傳』	未詳
1907년 8월 25일(善成館)	『俾斯麥傳』	黃潤德

주지하다시피 근대초기에 한국에 번역된 외국의 영웅전 중에서 『匈牙利愛國者噶蘇士傳』, 『羅蘭夫人傳』, 『伊大利建國三傑傳』 등 양계초의 작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한국에 번역 되어진 양계초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먼저 잡지나 신문에 연재된 후에 中央書館, 博文書館, 廣學書舖 등에서 다시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양계초의 『伊大利建國三傑傳』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어졌다. 이는 양계초의 작품들이 한국 독자들에게 매우 큰 호응을 얻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종합해보자면, 근대시기 한국 문인들은 양계초의 번역관을 수용하여 애국 계몽을 주제로 삼은 외국의 문학작품들을 대량으로 번역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당시 이미 근대국가를 이룬 서양 혹은 일본의 작품보다 오히려 양계초가 쓴 영웅전기 작품을 번역하여 출판하는데 힘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양계초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근대 한국 문인들 역시 적극적으로 자국의 영웅전기를 창작하기 시작 하였다.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으로는 장지연의 『애국부인전』, 신채호의 『을지문덕』, 『이순신전』, 『최도통전』, 박은식의 『서사건국지』, 『천개수문전』, 『안중근전』, 현재의 『강감찬전』 등이 있다.

1907년10월 3일(廣學書舖)	『愛國夫人傳』	崇陽山人
1907년10월 25일(廣學書舖)	『伊大利建國三傑傳』	申采浩
1908년 3월	『加非爾德傳』	玄公廉
1908년 4월 7일 ~ 4월15일 『大韓每日申報』	『新譯海外稗談』	未詳
1908년 6월 13일(博文書館)	『伊大利建國三傑傳』	周時經
1908년11월 5일 『共修學報』	『彼得大帝傳』	金演永

상기된 표를 보면 1906년부터 1908년에 이르기까지 한국 근대 신문과 학보에 번역 소개된 여러 나라의 영웅전은 그 수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비록 현재의 학술수준으로 본다면 그 수가 많다고 할 수는 없으나 과거 한국에서 이루어진 외국 영웅전의 번역상황과 비교해보면 한국 개화시기 영웅전의 번역은 전대미문의 번영을 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웅전은 단순히 역사영웅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국영웅 혹은 민족적 '투쟁사'를 통해 민족의 자주독립정신과 저항의식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였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자면, 근대 한국 문인들 역시 이러한 외국의 영웅전을 들여옴으로써 자주독립이라는 현실 문제를 타파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즉, 상술한 문학사적 사실들을 놓고 진후 관계를 파악해보면 양계초의 문학과 작품들이 한국 근대시기 영웅전이라는 문학 형식의 발전과 흥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을 알 수 있다.

4. 양계초 '영웅전'의 번역과 목적

앞서 언급했다시피, 양계초의 『意大利建國三傑傳』은 한국 영웅전 흥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작품 중에 하나이다. 『意大利建國三傑傳』은 1902년 『新民叢報』에 연재되었고, 그 해 『飲氷室文集』에도 수록되어졌다. 특히 『新民叢報』은 그 당시 서울과 인천 등지에 판매소가 설치되어 있어 한국 문인들이 직접 『新民叢報』를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후 『飲氷室文集』 역시 한국에 들어와 한국 문인들에게 널리 읽혔으며 한국 문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 『意大利建國三傑傳』은 1905년 처음 한국에 소개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번역되어 단행본 혹은 신문이나 잡지에 연재되는 형식으로 한국 독자들에게 소개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時間	題目	譯者	出版社
1905년 12월14일 ~ 1905년 12월 21일	『意大利阿瑪志傳』	未詳	大韓每日申報
1906년 12월18일 ~ 1906년 12월 28일	『讀意大利建國三傑傳』	未詳	皇城新聞
1907년 7월25일	『伊意大利建國三傑傳』	申采浩	廣學書鋪
1908년 6월13일	『伊意大利建國三傑傳』	周時經	博文書館

『意大利建國三傑傳』이 처음 한국으로 들어올 때에는 대부분 신문이나 잡지에 독후감이나 요약문형식으로 한국 독자들에게 소개되었다. 이는 단기간

에 『意大利建國三傑傳』에 대한 내용을 쉽게 민중들에 전달하려는 목적이 컸기 때문이다. 1907년에 들어선 후, 신채호는 단행본 형식으로 『伊意大利建國三傑傳』를 廣學書鋪에서 출판했다. 이 번역본은 국한혼용체를 사용한 완역본으로서 제목 상으로 원본의 ‘意大利’를 ‘伊太利’라고 표현한 것과 같이 한자 표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내용상으로도 대부분은 원문에 충실해서 번역하였다. 이를 이어 1908년에 주시경이 순수한 국문만을 사용하여 『意大利建國三傑傳』를 번역하여 출간하였다. 이는 간접적으로 『意大利建國三傑傳』이 꽤 높은 판매량을 보여 상업적인 이윤을 남겼음을 의미한다. 당시 보통 한번 출간했던 서적은 일반적으로 1년 사이에 再版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러한 점을 통해 우리는 양계초의 『意大利建國三傑傳』이 당시 한국독자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읽혀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18)

한국문인들이 『意大利建國三傑傳』를 번역하여 소개한 구체적인 목적과 그 의도는 번역본 『伊太利建國三傑傳』의 서문과 결론, 그리고 광고문 등에 비교적 잘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대적으로 애국정신을 선전하기 위함이다. 양계초는 『意大利建國三傑傳』의 결론부분에서 ‘이탈리아가 건국되기까지 여러 번의 풍파가 있었으나,

18) 여기서 우리는 근대 한국에서 양계초의 영웅전이 왜 이렇게 유행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그 당시 일본의 침략을 받던 한국의 특수한 역사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1905년 11월 일본과 을사조약을 맺은 후에, 전국에서는 의병운동이 일어났고 고종은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여 전 세계에 일본의 야만행위를 폭로하고 한국이 독립국가라는 것을 선포했다. 1907년에 일본은 ‘헤이그 특사사건을 빌미로 삼아 고종을 퇴위시키고 그 아들 순종을 즉위시켰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군대를 해산시켰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으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면서 한국 민중의 애국, 구국정서는 날로 높아져 갔으며, 이러한 시기에 항일민족정신과 독립정신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었다. 때문에 당시 여러 한국문인들이 양계초의 『意大利建國三傑傳』를 번역하여 한국에 소개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구국운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작품의 내용을 보면 이탈리아의 건국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구국영웅 ‘삼결’(마찌니, 가디발디, 카부르)의 업적을 소개하였다. 또한 한국문인들이 『意大利建國三傑傳』을 번역하여 소개한 내면에는 한국의 구국영웅의 출현을 희망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이에 낙심하지 않는 애국심이 있었다.'라고 서술하였다. 이처럼 이탈리아 건국 영웅들의 애국정신은 침략 받는 나라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널리 홍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신이었다. 이후, 한국의 문인들도 외국의 건국역사 중에서 國難을 극복한 실질적인 예시를 찾아 대대적으로 애국정신을 선전하기 시작했다. 당시 장지연은 『伊太利建國三傑傳』의 서언을 통해서 이탈리아의 애국정신을 본받고 용기를 내어 일본에 대항하기를 호소하였다.

그 지형이 우리와 비슷하고, 그 민중의 많고 적음도 우리와 그다지 차이가 없다. 아직 亞細亞洲의 동쪽, 黃海白山의 남쪽에 있는 우리를 모르지만, 장차 동방의 이탈리아가 생길 것이다. 19)

이 짧은 서언에서 우리는 이탈리아의 지형, 인구, 역사 등이 우리나라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지연은 한국은 이탈리아의 건국역사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흡수해서, 이탈리아와 같이 외적을 물리치고 자주독립 국가를 이룩하길 소망하였다. 또한, 신채호는 『伊意大利建國三傑傳』의 서론을 통해 『意大利建國三傑傳』을 번역하는 목적인 애국심 고취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愛國者가 無한 國은 雖強이나 必弱하며 雖盛이나 必弱하며 雖興이나 必亡하며 雖生이나 必死하고, 愛國者가 有한 國은 雖弱이나 必強하며 雖弱이나 必盛하며 雖亡이나 必興하며 雖死이나 必生하니, 至哉라 愛國者며 聖哉라 愛國者여. 20)

신채호는 한국 민중들에게 작품속의 애국자들을 본받을 것을 독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신채호는 국가의 존망과 애국자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19) 其地形類我, 其民口之多寡與我不甚差池。未知我亞細亞洲東部, 黃海白山之南, 亦將有一東方伊太利者. 신채호, 단재신채호전집(中), 서울: 형설출판사, 1998, p. 179.

20) 신채호, 단재신채호전집(中), 서울: 형설출판사, 1998, p. 183.

고 여겼기 때문이다.

둘째, 민족영웅의 출현을 기대하기 위함이다. 신채호가 『意大利建國三傑傳』를 번역한 시기 한국 사회는 이미 ‘역사영웅’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비록 이탈리아의 ‘三傑’은 모두 이국타향의 외국인이지만, 이것이 바로 그 당시 한국에 반드시 필요한 구국영웅 형상 이었다. 때문에 신채호는 서언을 통해 본서가 한국 민중에게 긍정적인 영감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였다.

望山河以慘目하고 仰蒼天以悲叫다가 有情의 一筆로 伊太利 愛國者 三傑의 歷史를 述하노리, 其國難의 與我相類하고 其年祚도 距今不遠이라. 其難苦經驗이 彷彿往來于吾胸하고 其聲音笑貌가 突兀捧現于吾前하는도다. 若此書의 因緣과 此書의 紹介로 大韓中興三傑傳 或 三十傑 三百傑傳을 更作하면 此는 無涯生 無涯의 血願也로다. 伊太利建國 三傑傳을 述하노라. 21)

상기한 내용에서 보듯, 신채호는 한국의 ‘三傑’, 심지어 ‘三十傑’, ‘三百傑’이 출현하길 기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본서를 읽는 모든 독자가 ‘구국영웅’이 되기를 소원하였다. 그는 『意大利建國三傑傳』의 결론부분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그 소원을 기술하였다.

爾惟求爲三傑哉어다. 朝求爲三傑하며, 今日에 求爲三傑하며 明日에 求爲三傑하면 爾不能爲三傑하더라도 爾之同類에 必有三傑하니, 故로 學三傑而不能至하면 惟得爲三傑之卒徒하느니라. 有三傑之始祖 然後에 可以造三傑이오, 有三傑之卒徒 然後에 三傑이 可以爲三傑이니, 讀我 伊太利之三傑者여, 母恤禍福하며 母顧榮辱하고, 惟以血誠으로 頂天而立하면 將來 此國을 由君得求하리니, 是所望于讀者也로다. 22)

신채호는 본서를 통해서 영웅이 출현하기를 고대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러

21) 신채호, 단재신채호전집(中), 서울: 형설출판사, 1998, p. 184.

22) 신채호, 단재신채호전집(中), 서울: 형설출판사, 1998, p. 250.

한 소망은 본서를 읽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신채호는 한 두 명의 영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민중의 역량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馬志尼當中에 無名之馬志尼가 當不知幾千幾百人이며, 加里波的摩下에 無名之加里波的이 當不知幾千幾百人이며, 加當爾幕裡에 無名之加當爾가 當不知幾千幾百人이라. 若 三傑者는 不過 伊太利 全國民中에 其代表者 三人而已니, 全國이 俛偃하여 不痛不癢하면 雖有 亦何能爲 리오. 23)

그는 이탈리아의 독립은 단순히 세 명의 영웅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전국의 수백, 수천 명의 무명씨 영웅들에 의해서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를 이룩한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또한 민족전체의 잠재적인 역량을 강조하며, 국가 구성원 모두 자기 분야에서 영웅적인 역할을 감당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신채호의 '영웅관'은 「二十世紀新國民」이라는 글을 통해 매우 구체화 되었다.

大抵 二十世紀의 國家競爭은 其 原動의 力이 一, 二人에게 不在하고 其 國民全體에 在하며, 其 勝敗의 果가 一, 二人에게 不由하고 其 國民全體에 由하여 政治家는 政治로 競爭하고, 宗教家는 宗教로 競爭하며, 實業家는 實業으로 競爭하며 或은 武力으로 하며, 或은 學術로 하여 其 國民全體가 優한 者는 勝하고 劣한 者는 敗하니. 24)

신채호는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의 원동력이라 생각하였다. 그는 양계초의 사회 진화론적 '경쟁사상'에 입각하여 국민 개개인 모두가 자기분야에서 실력을 쌓아 경쟁력을 갖추 일인자가 되기는 국가 전체의 '영웅화'를 주장하였다.

23) 신채호, 단재신채호전집(中), 서울: 형설출판사, 1998, p. 250.

24) 신채호, 단재신채호전집(中), 서울: 형설출판사, 1998, pp. 210-211.

상술하다시피, 신채호는 양계초가 논한 국가 ‘경쟁개념’과 ‘영웅개념’을 수용하여 발전시켰다. 이 외에도 박은식, 장지연, 현채 등 당시 한국의 계몽지사들 역시 양계초의 영향을 받아 영웅전 번역을 통한 애국정신 고취를 실현코자 하였다. 이러한 문인들의 노력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한국의 영웅을 제재로 하거나 애국정신을 주제로 한 창작 영웅전도 점차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5. 한국근대 ‘영웅전’의 성행

국가의 존망이 불투명했던 시기에 양계초는 외국의 영웅전을 통해 민족정신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신채호는 양계초의 영웅전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의 번역관과 사회 진화론적 自強사상²⁵⁾을 상당 부분 흡수하여 자국의 영웅전을 창작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양계초와 신채호 모두 작가의 신분으로 영웅전을 창작하였기 보다는 애국계몽지사의 책임감으로 영웅전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한중 양국은 모두 제국주의의 열강들의 침략을 받아 반식민지 혹은 식민지의 국가로 전락된 상황이었으며, 많은 애국지사들은 문학작품 속의 민족 영웅 형상을 통해 국민들의 사상을 계몽시키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이 시기 영웅전들은 대부분 문학적 형상의 표현보다는 주제를 강조하는 공리주의적 태도를 보인다.

신채호는 양계초의 『伊太利建國三傑傳』 번역을 기초로 하여, 한국의 역사인물을 제재로 삼은 『을지문덕』 등의 영웅전들을 창작하기 시작하였다. 1908년 7월 5일에 광학서포에서 출판한 『을지문덕』은 국한혼용체로 쓰여졌으며,

25) 신일철은 『신채호의 역사사상 연구』에서, 신채호가 1905년 혹은 1906년경 『皇城日報』와 『大韓每日』에 투신했을 때, 그 당시 저명한 문인인 박은식, 장지연 등 모두 양계초의 『음빙실문집』의 강렬한 영향하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飲氷室文集』은 양계초의 변법자강상이 녹아들어가 있으며, 1907년에 한역본 『飲氷室自由書』의 기본적인 논조는 정말 엄복이 소개한 다윈의 진화론과 스펜서가 주장한 사회진화론 사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참조: 신일철, 『신채호의 역사사상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3, p. 65.

변영만의 序, 이기찬의 序, 안창호의 敍가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 사실 이는 비교적 특수한 현상으로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본문내용을 여러 각도로 분석하고 요약한 서문을 세 종류나 실었다고 판단된다. 이 책은 1908년 7월 5일에 김연창에 의해 순수 한국어로 번역되어 再版 되었다. 이는 『을지문덕』 역시 당시 독자들에게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안창호의 敍를 통해서 신채호가 『을지문덕』을 창작한 목적을 알아보자.

雖然이나 著者가 此로 讀者의 樽前茶後에 談柄을 資코자함이 아니라 祖國의 名譽歷史를 擧하야 卑劣者를 警醒함이며, 讀者의 螢牕蠹床에 文潮를 發코자 함이 아니라, 先民의 偉大事業을 贊하야 國民의 英雄崇拜心을 鼓吹함이며, 抑又二千年前의 風雲戰爭을 開歌詠코자함이 아니라 熱誠的 冒險的의 古人往跡을 描畫하야 二千年後第二乙支文德을 喚起함이니, 凡我讀者는 恒常 此意로 此書를 讀할 지어다. 26)

안창호 敍를 보면 『을지문덕』에서 ‘영웅대망론’ 사상이 매우 강조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二千年後第二乙支文德’는 당시 한국문인들이 과거의 외적을 물리친 영웅을 본받아 현재의 영웅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외에도 『을지문덕』의 본문 중에서 신채호가 직접 쓴 緒論을 보면 ‘영웅대망론’의 색채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若我國은 一手로 獨立山河를 整頓하며 一劍으로 百萬強敵을 殺退한 眞英雄의 大戰跡도 如此抹殺하니 兩國後來強弱의 異點이 엇지此에 不在타 하리오. 過去의 英雄을 寫하야 未來의 英雄을 招하노라. 27)

그는 이 글을 통해 비록 현재의 한국은 국력이 약하지만 과거에는 을지문덕과 같은 영웅이 있어 나라를 침범하려던 외적을 물리쳤던 휘황찬란한 역사

26) 신채호, 단재신채호전집(中), 서울: 형설출판사, 1998, pp. 265-266.

27) 신채호, 단재신채호전집(中), 서울: 형설출판사, 1998, pp. 276-277.

를 지니고 있다고 역설한다. 또한 ‘과거의 영웅을 묘사함으로써 현재의 영웅을 불러 낸다’라는 창작의 목적을 밝히며 현세의 영웅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였다. 당시 『을지문덕』은 청년들에게 애국사상을 가르치는 교재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일본의 ‘도서검찰제도’에 의해 『을지문덕』 등을 비롯한 수많은 도서들이 금서로 지정되어 버렸다.

그 후 신채호는 계속해서 『이순신전』(1908)과 『최도통전』(1909)을 창작했다. 『이순신전』은 1908년 5월 2일부터 8월 18일까지 『대한매일신보』에 『水軍第一偉人李舜臣傳』이란 제목으로 연재되었다. 신채호는 제 1장 緒論을 통해 자신이 『이순신전』을 창작한 목적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스에 往昔 日本과 對抗함에 足히 我民族의 名譽를 代表할 만한 偉人을 求하건대, 上世에 兩偉人이니 高句麗 廣開土王, 新羅 太宗王이오, 近世에 三偉人이니 金方慶, 鄭地, 李舜臣이라, 凡五人에 止하였도다. 然이나 其 時代가 近하고 其業跡이 備하여 後人의 模範되기 最好한 자는 惟我 李舜臣이 是며, 惟我 李舜臣이 是로다. 28)

역사적으로 이순신은 과거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때문에 당시 일본의 지배를 받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순신전』은 다른 영웅전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으며, 더 뜨거운 애국정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신채호는 이러한 의미로써 『이순신전』을 창작하였고,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맞보고자 하였다. 또한, 신채호는 이순신의 전적을 소개하면서 서양의 민족 영웅들과의 비교를 통해 다시 한 번 그의 애국정신을 칭송하였다.

嗚呼라. 彼 乃利孫이 雖武나 萬一 二十世紀 今日에 李忠武와 並生하여 海上風雲 武裝에 相見하면 畢竟 其兒孫에 不過할진저. ……打底 水軍의 第一偉人을 有하고 鐵甲船 創造에 鼻祖된 我國으로, 今日에 至하여 彼 海權最大한 國과 比較하기는 姑捨하고 竟乃 國家란 名詞도 若存若亡의

28) 신채호, 단재신채호전집(中), 서울: 형설출판사, 1998, p. 357.

悲境에 陷하였으니, 余가 彼 幾百年來에 民氣를 摧折하며, 民知를 堵塞하고 文弱思想을 與한 卑劣政客의 遺毒을 回思하매 恨이 海波와 俱深하다.

茲에 李舜臣을 撰하여 苦痛에 陷한 我國民에게 餉하노니, 凡 我善男信女는 此를 模範하여, 此를 步趨하여 荊天刺地를 踏平하며, 苦海難關을 超過할지어다.

上夫이 二十世紀의 太平洋을 莊嚴하고 第二 李舜臣을 待하나니라.²⁹⁾

신채호는 민족영웅이 세계적인 영웅에 비해 하나도 손색이 없다고 여겼으며, 이순신은 영국해군제독 넬슨(Horatio Nelson)³⁰⁾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라 여기며 ‘水軍第一偉人’이라 칭송하였다. 이는 『이순신전』을 통해 민족적 자긍심과 자신감을 회복하고자 하였던 신채호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이순신전』을 통하여 일본을 물리칠 수 있는 이순신과 같은 영웅이 다시 나와 한국의 자주독립과 국권회복에 앞서기를 소망하였다.

6. 나오는 말

근대시기 한국에서 일어난 ‘영웅전’의 창작과 번역의 붐은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된 한국의 국가적 상황과 불과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는 강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 논리의 ‘사회진화론’과 국가적 영웅의 출현을 통해 민족적 위기를 극복한다는 ‘계몽이론’의 연장선상에서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사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근대시기 한국에서 사회진화론 사상이 수용되어지고 영웅전기소설이 창작된 것은 서양과 일본의 직간접적 영향이 있었기

29) 신채호, 단재신채호전집(中), 서울: 형설출판사, 1998, pp. 413-414.

30) 호라시오 넬슨은 영국민이 존경하는 민족영웅이다. 코르시카 점령(1794), 세인트 빈센트 해전(1797) 등에서 중대한 공훈을 세웠고, 1805년 트라팔가 해전에서 승리하였으나, 그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에 가능하였다. 허나 이와 동시에 중국의 문인 양계초 역시 한국의 진화론 사상과 영웅전기 소설의 변영에 매우 중요한 매개자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 역시 간과 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시 한국의 문인들은 수많은 양계초의 글을 번역하여 한국에 소개하였다. 그들이 양계초의 글을 번역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이유는 당시 한중 양국의 작가들 모두 작품을 창작하고 감상할 때에 한자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 문단에서는 영웅전을 창작할 시 순 국문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허나 막상 한글을 사용하여 창작을 하면 단어 선택과 문맥의 흐름에 있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많았으며, 오히려 한문을 사용하여 창작을 하게 되면 훨씬 자연스럽게 그 의미가 명확해 지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한국의 문인들 중에서도 서양과 일본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들이 상당수 있었으나 그 수와 질에 있어서 중국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한국 문인들의 질 높은 한문소양은 양계초의 글이 한국에 전파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본적 바탕이 되었다. 뛰어난 한문 실력을 갖춘 한국의 漢學者들은 매우 쉽고 자연스럽게 양계초의 글을 접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이를 통해 서양과 일본의 ‘신사상’을 간접적으로 흡수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문인들이 양계초의 글을 번역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당시 한중 양국이 처한 국정과 역사적 상황이 여러모로 비슷하였기 때문이다. 양계초가 영웅전을 창작을 하던 시기 중국은 서구 열강과 일본 제국주의의 동시 다발적인 침략을 받아 반식민지로 전락되기 시작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문인들은 양계초의 글을 접하면서 동변상련의 아픔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글에 친근감을 느끼고 위안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양계초 작품들은 국권보호와 민족의식 고취를 주제로 하였기 때문에 양계초의 글을 읽고 번역하는 것 자체가 애국사상을 교육하고 선전하는 방법이라 여기게 되었다.³¹⁾ 세 번째 이유는 양계초 스스로 자신의 글을 통해 한국에 대한 끊임없는 동정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의 <朝鮮亡國史略>를 보면 그가 한국의 국정변화에 얼마나 지대

31) 참조: 졸고, 「梁啓超在“開化期”韓國的影響」, 『靑島大學師範學院學報』, 2011(3).

한 관심을 보였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는 자신의 글을 통해 일본의 침략 행위를 신랄하게 비판함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무한한 동정과 애정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그의 관점으로 인해 당시의 한국 문인들은 양계초의 글을 쉽게 받아들이고 동감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06년부터 1910년에 이르기까지 근대 한국 문단에서 이루어진 '영웅전'이란 문학형식의 번역과 창작의 변형은 양계초의 영웅전이 근대 한국 문단에 미친 영향과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당시 근대 한국 문인들은 양계초의 영웅전을 번역하여 소개하였고, 이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재판되어 대중적인 지지를 얻었으며 상당히 두터운 독자층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양계초의 영웅전이 한국 근대문단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음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한국 문인들 역시 양계초의 영웅전의 영향을 받아 여러 신문 잡지에 그와 관계된 독후감, 평론문, 사설들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역사인물들의 역사적 사실을 제재로 한 '영웅전기'를 창작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신채호를 중심으로 한 애국지사들은 한국 역사 속의 민족영웅을 찾아내 일련의 한국영웅전이 창작하였다. 그들은 『을지문덕』을 통해 민족적 자신감을 되찾고자 하였고, 『이순신전』을 통해 일본을 격퇴시킬 수 있는 영웅을 갈망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양계초의 '영웅전' 수용은 근대시기 한국문단의 독창적인 영웅전 집필에 좋은 자양분이 되었다. 영웅전을 통해 수용된 '영웅'의 개념은 이후 국난은 한명의 국가적 영웅이 극복하는 것이 아닌, 민족 구성원 전체가 모두 '영웅'이 되어야 한다는 '광의적 영웅'으로서의 '신국민'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는 양계초의 '신민'사상과 상충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후에 연구할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參考文獻

- 劉大杰, 『中國文學發達史』, 臺北: 中華書局, 1976.
- 梁啓超, 『梁啓超全集』, 北京: 北京出版社, 1999.
- 신채호, 『단재신채호전집』, 서울: 형설출판사, 1998.
- 葉乾坤, 『梁啓超와 舊韓末 文學』, 서울: 法典出版社, 1980.
- 신일철, 『신채호의 역사사상연구』,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1993.
- 金柄珉, 『朝鮮—韓國文學의近代轉型與比較文學』, 長春: 延邊大學出版社, 2005.
- 林語堂, 「論文(上)」, 『論語』, 第2卷 第15期, 1934·4.
- 정환국, 「대한제국기 계몽지식인들의 ‘구국주체’ 인식의 궤적」, 『사림』, 제23호, 2005·6
- 이상원, 「『을지문덕』 연구」, 『국어국문학』 22, 1984·12.
- 박노자, 「신채호의 『을지문덕』과 『수군제일위인이순신』: 외경을 통한 “우리 민족” 만들기」, 『이순신연구논총』 제15호, 2011·봄/여름.
- 陳昭珍, 『明代書坊之研究』, 碩士學位論文, 臺灣大學 圖書館學研究所, 1984
- 이현미, 『한국의 영웅론 수용과 전개, 1895-1910』, 碩士學位論文, 서울대학교, 2004.
- 우림걸, 『韓國 開化期 文學에 끼친 梁啓超의 影響 연구』, 博士學位論文, 성균관대학교, 2000.
- 김미라, 『단재 신채호 소설 연구: 작품에 나타난 영웅상을 중심으로』, 碩士學位論文, 성균관대학교, 1998.
- 한진일, 『애국계몽기 역사전기문학 연구』, 碩士學位論文, 성균관대학교, 1993.

<Abstract>

The Relation between Modern South Korea “Heroes” and Liang Qichao

Moon Daeil

In modern Korean literary circles, the translation or creation of “Heroes” emerged in succession from 1906 to 1910. Looking at the period in Korea when the literary form of “Heroes” was on the rise and becoming popularized, the literary form’s progress is inseparable from the influence of Liang Qichao’s “Heroes” on modern day Korea. For supporting the grounds of this argument, one can see that Modern Korean literati not only translated Mr. Liang’s “Heroes”, but also reprinted works and published second editions while spreading the literature far and wide and gaining a large reader base. As one can well imagine, Mr. Liang’s “Heroes” heavily influenced Modern Korean literary circles. Korean literati were also greatly inspired by Mr. Liang’s “Heroes”. This can be seen not only with repeated publications of related post-reading reactions, commentaries and editorials in major newspapers and periodicals, but even more fundamentally with the start of large-scale production of using chronicles of Korean historical figures as material for the “Hero Biographies”. From this, we can clearly see that the purpose for Modern Korean literati translating or creating “Heroes” is closely related to Liang Qichao’s influence.

Key Words : Heroes, Shen Caihao, Liang Qichao, social evolutionism, patriotic enlightenment

투 고 일 : 2013. 1. 10. / 심 사 일 : 2013. 1. 20. ~ 2013. 2. 10. / 게재확정일 : 2013. 2. 17.